

## 울산지역 여대생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

신완철 · 김혜경  
식품영양학전공

### <요 약>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평소의 음주행동, 의식 및 음주문화 전반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2.1 \pm 7.8\text{cm}$  및  $50.7 \pm 6.3\text{kg}$ 으로 나타나서 한국인 영양권장량 평균치와 비교하였을 때 신장은 약간 크고 체중은 낮게 나타났다. 음주횟수는 한 달에 한번(24.5%)과 일주일에 한번(22.5%)이 높게 나타났다.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가 각각 43.0%와 37.0%로 나타났으며, 안주의 종류로는 탕류가 5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일과 튀김류의 순이었다. 술을 마시는 장소로는 62.5%가 학교 근처의 호프집을 이용했고 25.5%가 소주방이나 로바다야끼를 이용하였으며, 2차로 가는 장소로는 노래방이 69.5%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술값 지출비용은 2만원 미만 이 42.0%, 4만원 미만이 38.5%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음주 후의 수업태도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가 60.0%로 가장 높았고 음주 후 습관으로는 '잠을 잔다'가 37.5%, '말이 많아진다'가 28.0%를 나타냈으며, '아무 변화 없다'의 경우도 20.0%, 그 밖에 '운다'와 '폭력적이다'도 소수 보였다. 한 달 용돈에 따른 음주행동에서는 용돈이 많을 수록 술값지출비용이 유의적으로( $p < 0.001$ ) 증가하였고 술마시는 횟수나 술의 종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A Study on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Ulsan

Shin, Wan Chul · Kim, Hye Kyu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rinking patterns and behaviors of

femal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200 subjects in Uls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ith regard to kind of alcoholic beverage, 43.0% of subjects have a preference for beer and 37.0% of them have a preference for soju.
2. The most favorite side dishes are 'tang' and 'tjaegae' (54.0%) then followed fried foods and fruits.
3. The most popular place for drinking of subjects was nearby pubs(62.5%), and followed sojubang(25.5%).
4. The reasons for drinking were social gathering after school or student activities, mood change, celebrating occasions.
5. Data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nthly pocket money and financial costs they spent for drink.

## I. 서론

알코올은 고대로부터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 중 하나로서 현대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문제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알코올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적당한 음주는 인간의 삶을 여유롭게 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음주는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알코올의 다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삼고 있으며(WHO 1986, Roman 1991), 우리 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퇴조되고 서구화된 생활양식의 도입과 더불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음주인구 및 알코올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청소년의 음주와 여성의 음주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폭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습관과 음주습관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 주위에서도 알코올로 인해 건강을 잃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알코올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 사람의 최대 사망 원인은 고혈압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서 인구 10만명당 110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뇌혈관 질환과 위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간암과 고혈압성 질환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68.4%, 남성의 83.3%까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최혜미 외 2000).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학생의 음주문화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997년도 설문조사(한국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 1997)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93%가 술을 마신다고 답하였으면, 마시는 술의 종류는 대부분이 맥주와 소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는 1주일에 1~2회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3~4회가 15%, 매일 마시는 경우도 전체의 3.8%에 해당하였으며, 과음을 하는 빈도도 일반 성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알코올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형편이다.

따라서 음주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울산대학교 여

대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일반 사항, 식습관 및 음주행동 등을 조사하여 여대생의 음주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평소의 음주행동, 의식 및 음주문화 전반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문헌들을(한명주 등 1998, 신애숙 등 1999) 참고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9년 5월 24일부터 27일 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안 후 9월 1일부터 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습관, 음주행동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학년, 신장, 체중, 거주형태, 한달 용돈, 한달 술값 지출비용, 운동여부, 운동종류 및 횟수를 조사하였다. 식습관으로는 하루 세끼 식사의 규칙성, 결식시기 및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음주와 관련된 행동으로는 마시는 술의 종류, 음주습관, 음주이유, 음주횟수, 술을 마시는 동료, 음주장소 등을 조사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변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거주형태는 자택 통학이 전체의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취, 기숙사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식과 영양섭취가 부족되기 쉬운 자취생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이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동횟수는 일주일에 3-4번(37.9%), 하루에 한 번(28.8%), 일주일에 한 번(28.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33.3%)이 가장 많고, 2학년의 경우 하루에 한 번(42.9%), 3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3-4번(41.2%), 4학년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6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62.1 \pm 6.8\text{cm}$  이었고, 학년별로 1학년은  $161.1 \pm 6.6\text{cm}$ , 2학년은  $162.8 \pm 6.5\text{cm}$ , 3학년은  $162.7 \pm 7.1\text{cm}$ , 4학년은  $161.5 \pm 6.2\text{cm}$ 로 한국 영양권장량에 명시

된 평균치보다 2cm정도 컸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체중은  $50.7 \pm 5.3\text{kg}$ 이었고, 1학년의 경우  $49.3 \pm 5.7\text{kg}$ , 2학년의 경우  $51.3 \pm 5.4\text{kg}$ , 3학년의 경우  $51.1 \pm 5.0\text{kg}$ , 4학년의 경우  $51.0 \pm 4.9\text{kg}$ 으로 한국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평균보다 2.3kg 적었다. 신장은 증가하고, 체중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결식이나 영양섭취 부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 년				전 체	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n=200)	
		(n=50)	(n=50)	(n=50)	(n=50)		
거주 형태	자택	45(90.0)	45(90.0)	45(90.0)	39(78.0)	174(87.0)	$\chi^2=16.137$
	자취	0(0.0)	5(10.0)	5(10)	7(14.0)	17(8.5)	DF=6
	기숙사	5(10.0)	0(0.0)	0(0.0)	4(8.0)	9(4.5)	p<0.013
월평균 용돈 (만원)	10만원 이하	5(10.0)	5(10.0)	4(8.0)	3(6.0)	17(8.5)	$\chi^2=20.176$ DF=18 NS
	11-15만원	18(36.0)	21(42.0)	10(20.0)	18(36.0)	67(33.5)	
	16-20만원	17(34.0)	15(30.0)	23(46.0)	15(30.0)	70(35.0)	
	21-25만원	7(14.0)	7(14.0)	3(6.0)	5(10.0)	22(11.0)	
	26-30만원	2(4.0)	2(4.0)	6(12.0)	6(12.0)	16(8.0)	
	31만원 이상	1(2.0)	0(0.0)	4(8.0)	3(6.0)	8(4.0)	
운동 여부	한 다	14(28.0)	21(42.0)	16(32.0)	13(26.0)	64(32.0)	$\chi^2=13.052$ DF=9
	하지 않는다	36(72.0)	29(58.0)	34(68.0)	37(74.0)	136(68.0)	NS
운동 횟수	매일 한다	4(26.7)	9(42.9)	4(23.5)	2(15.4)	19(28.8)	$\chi^2=22.203$ DF=12 p<0.035
	일주일에 한번	5(33.3)	3(14.3)	3(17.6)	8(61.5)	19(28.8)	
	일주일에 3-4번	6(40.0)	9(42.9)	7(41.2)	3(20.1)	25(37.9)	
	한 달에 한번	0(0.0)	0(0.0)	3(17.6)	0(0.0)	3(4.5)	
운동 종류	조깅	0(0.0)	3(14.3)	4(25.0)	0(0.0)	7(10.9)	$\chi^2=21.832$ DF=21 NS
	헬스	3(21.4)	0(0.0)	3(18.8)	2(15.4)	8(12.5)	
	수영	2(14.3)	2(9.5)	1(6.25)	2(15.4)	7(10.9)	
	테니스	0(0.0)	0(0.0)	1(6.25)	1(7.7)	2(3.1)	
	줄넘기, 홀라후프	4(28.6)	5(23.8)	3(18.8)	4(30.8)	16(25)	
	매체(비디오, TV)를 통한 체조	3(21.4)	3(14.3)	1(6.25)	1(7.7)	8(12.5)	
	기타	2(14.3)	8(38.1)	3(18.8)	3(23.1)	16(25)	

<표 2>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 및 체중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n=50)	(n=50)	(n=50)	(n=50)	(n=200)
신장(cm)	$161.1 \pm 6.6^a$	$162.8 \pm 6.5$	$162.7 \pm 7.1$	$161.5 \pm 6.2$	$162.1 \pm 6.8$
체중(kg)	$49.3 \pm 5.7$	$51.3 \pm 5.4$	$51.1 \pm 5.0$	$51.0 \pm 4.9$	$50.7 \pm 5.3$

a : 평균  $\pm$  표준편차

## 2.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세끼 식사의 규칙성 여부에서 전체적으로는 66.0%가 불규칙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74.0%), 1학년(68.0%), 4학년(64.0%), 3학년(58.0%)의 순서로 나타나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식하는 끼니로는 아침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학년(62.5%), 3학년(59.4%), 1학년(57.1%), 2학년(31.6%)의 순서로 많았고, 2학년의 경우에는 다른 학년에 비해 점심과 저녁의 결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하는 이유로는 조사대상자의 절반정도(53.0%)가 '시간이 없어서' 이었고 다음이 '귀찮아서' 가 24.0%로 나타났다. 1학년(44.4%), 2학년(47.4%), 3학년(56%), 4학년(65.6%) 모두 '시간이 없어서' 가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영양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서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학 년				전 체	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n=200)	
		(n=50)	(n=50)	(n=50)	(n=50)		
하루 세끼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16(32.0)	13(26.0)	21(42.0)	18(36.0)	68(34.0)	$\chi^2=9.371$ DF=9
	불규칙적	34(68.0)	37(74.0)	29(58.0)	32(64.0)	132(66.0)	NS
주로 결식하는 끼니	아침	20(57.1)	19(31.6)	19(59.4)	20(62.5)	78(56.9)	$\chi^2=5.917$ DF=9
	점심 저녁	6(20.0)	8(23.7)	2(9.4)	6(18.6)	23(18.2)	NS
결식하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	16(46.0)	18(47.4)	18(56.0)	21(65.6)	73(53.0)	$\chi^2=30.654$ DF=15 p<0.010
	귀찮아서	15(43.0)	6(15.8)	6(19.0)	6(18.8)	33(24.0)	
	배가 고프지 않아서	3(9.0)	6(15.8)	2(6.0)	0(0.0)	11(8.0)	
	살을 빼기 위해서	1(3.0)	7(18.4)	6(19.0)	1(3.1)	15(11.0)	
	기타	0(0.0)	1(2.6)	0(0.0)	4(12.5)	5(4.0)	

## 3. 음주 행동

조사 대상자의 음주 행동에 관한 사항을 <표 4-1>에 제시하였다. 술 마시는 횟수는 한 달에 한 번(24.5%), 일주일에 한 번(22.5%), 보름에 한 번(20.5%)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28.0%)이 가장 많았고, 2학년은 하루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달에 한 번이 모두 20.0%로 같이 나타났으며, 3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26.0%), 한달에 한 번(26.0%)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한달에 한 번(36.0%)이 가장 많았다. 여기서 1학년의 경우는 자주 술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고, 2, 3학년의 경우는 자주 마시는 경우와 가끔 마시는 경우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다가 4학년이 되면 한달에 한 번으

로 술 마시는 횟수가 줄어든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술 마시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학년의 경우는 잦은 학과행사나 모임 등으로 고학년에 비해 술 마시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술 마시는 이유는 전 학년이 모임 및 행사가 62.5%로 압도적이었다. 3학년의 경우는 모임 및 행사(28.0%) 이외에도 기분에 따라(16.0%), 날씨에 따라(12.0%), 그냥(10.0%)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누구와 술을 마시는가’는 친구(61.5%), 선배나 후배(28.0%)의 순서로 나타났고 학년 별로는 1, 3, 4학년의 경우는 친구, 선배나 후배와 마신다가 많았지만 3학년의 경우는 애인과 마신다가 12.0%로 다른 학년에 비해 많았다.

음주 전 건강을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는 전체적으로 62.7%가 ‘밥을 챙겨 먹는다’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의 경우는 기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가 36.0%로 가장 많았다.

&lt;표 4-1&gt; 학년별 음주행동

명(%)

	학 년				전 체 (n=141)	비 고	
	1학년 (n=50)	2학년 (n=41)	3학년 (n=50)	4학년 (n=50)			
술 마시는 횟수	매일	3(6.0)	8(19.5)	2(4.0)	0(0.0)	13(9.2)	$\chi^2=63.779$ DF=18 p<0.000
	일주일에 한번	14(28.0)	9(21.9)	13(26.0)	9(18.0)	45(31.9)	
	일주일에 3,4번	10(20.0)	2(4.8)	8(16.0)	3(6.0)	23(16.3)	
	보름에 한번	11(22.0)	10(24.4)	6(12.0)	14(28.0)	41(29.0)	
	한달에 한번	8(16.0)	10(24.4)	13(26.0)	18(36.0)	49(34.7)	
	기타	4(8.0)	2(4.8)	8(16.0)	6(2.0)	20(14.2)	
술 마시는 이유	모임 및 행사	36(72.0)	19(43.2)	34(68.0)	36(73.5)	125(64.8)	$\chi^2=85.931$ DF=18 p<0.000
	기분에 따라	10(20.0)	8(18.2)	15(30.0)	13(26.5)	46(23.8)	
	날씨에 따라	0(0.0)	6(13.6)	0(0.0)	0(0.0)	6(3.1)	
	그냥	4(8.0)	5(11.4)	1(2.0)	0(0.0)	10(5.2)	
	기타	0(0.0)	6(13.6)	0(0.0)	0(0.0)	6(3.1)	
누구와 주로 술을 마시는가	친구	37(74.0)	27(61.4)	28(56.0)	31(63.3)	123(63.7)	$\chi^2=28.541$ DF=12 p<0.005
	선배, 후배	11(22.0)	14(31.8)	15(30.0)	16(32.7)	56(29.0)	
	애인	0(0.0)	1(2.3)	6(12.0)	2(4.0)	9(4.7)	
	기타	2(4.0)	2(4.5)	1(2.0)	0(0.0)	5(2.6)	
음주전 건강을 위한 행동	밥을 먹는다	39(78.0)	11(25.0)	37(74)	34(69.4)	121(62.7)	$\chi^2=58.876$ DF=12 p<0.000
	약을 복용한다	3(6.0)	5(11.4)	3(6.0)	0(0.0)	11(5.7)	
	우유를 마신다	4(8.0)	10(22.7)	1(2.0)	1(2.0)	16(8.3)	
	기타	4(8.0)	18(40.9)	9(18.0)	14(28.6)	45(23.3)	

술 마시는 장소는 전체의 62.5%가 호프를 이용했고, 25.5%가 소주방이나 로바다야끼를 이용했다. 술 마실 때 좋아하는 분위기는 ‘시끄러운 분위기’를 1학년(54.0%), 2학년(38.0%), 3학년(60.0%)이 선호했고 4학년은 조용한 분위기(58.0%)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43.0%)와 소주(37.0%)가 많았다. 학년 별로는 1학

년의 경우 소주가 50.0%로 많았고, 2학년의 경우도 소주가 40.0%로 높게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는 소주(38.0%), 맥주(46.0%)순으로 맥주가 조금 더 많았으며, 4학년의 경우 맥주가 72.0%로 월등히 높았다. 이것으로 보아 저학년일 때 소주를 마시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맥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주 선택 시 중요시하는 점은 기호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의 경우 기호성(50.0%), 2학년의 경우 가격(28.0%)과 분량(26.0%), 3학년의 경우는 기호성(29.0%)을 중요시하고 영양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도 이와 같이 기호성(70.0%)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 중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는 탕류를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는 1학년(16.0%), 3학년(20.0%), 4학년(26.0%)이 모두 과일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학년의 경우는 튀김류(40.0%), 탕류(22.0%)의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사결과(신애숙 등 1999)에서 찌개, 탕류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하였다.

술값 지불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 낸다'가 52.8%로 높게 나타나서 dutch pay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달 동안 술값지출 비용은 '2만원 미만' (42.0%)과 '2-4만원 미만' (39.9%)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2만원 미만'은 1학년(44.0%), 2학년(46.0%), 3학년(40.0%), 4학년(32.0%)으로 변할수록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4만원 미만'은 1학년(48.0%), 2학년(24.0%), 3학년(34.0%), 4학년(48.0%)이 될수록 증가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술값의 지출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몇 차까지 가는지는 '2차까지 간다'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의 경우는 '3차까지 간다'가 22.0%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다. 2, 3차를 가는 이유는 '좋은 분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41.5%),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19.8%)의 순서로 높았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주 후 출석률은 전체적으로 76.2%, 학년별로는 1학년(86.0%), 2학년(74.0%), 3학년(48.0%), 4학년(86.0%)이 수업은 꼭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는 다른 학년에 비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이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3차까지 가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음주 후의 수업 태도는 1학년(54.0%)과 2학년(42.0%)은 '평소와 같다'가 많았고 3학년(40.0%), 4학년(60.0%)은 '집중력이 떨어진다'가 높았다.

음주 후 후회 여부는 1학년(62.0%), 2학년(50.0%), 4학년(68.0%)은 '후회한 적 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후회한 적 없다' (62.0%)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후회한 적 있다'가 54.5%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자신의 주량보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

IMF전후의 술 마시는 정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 마시는 횟수는 1학년(58.0%), 2학년(54.0%), 3학년(68.0%) 모두 '그대로이다'가 높게 나타났다. 4학년은 '줄었다' (48.0%), '그대로이다' (44.0%)순서로 나타났는데 IMF전후의 술 마시는 정도와 횟수는 1, 2, 3학년은 변화가 없는 반면 4학년만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모임 및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술의 종류는 맥주(43.0%), 소주(37.0%), 막걸리(8.0%), 과일 소주(8.0%) 순서로 나타났고, 학년별로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산 지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소주가 71.6%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산 지역에서는 맥주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술 종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lt;표4-2&gt; 학년별 음주행동

		학 년				전 체	비 고
		1학년 (n=50)	2학년 (n=44)	3학년 (n=50)	4학년 (n=49)	(n=193)	
술 마시는 장소	호프	27(54.0)	34(77.3)	34(68.0)	30(61.2)	125(64.8)	$\chi^2=41.812$ DF=18 p<0.001
	소주방, 로바다야끼	16(32.0)	5(11.4)	14(28.0)	16(32.7)	51(26.4)	
	동동주집	6(12.0)	3(6.8)	1(2.0)	0(0.0)	10(5.2)	
	나이트	0(0.0)	2(4.5)	0(0.0)	0(0.0)	2(1.0)	
	집	0(0.0)	0(0.0)	1(2.0)	1(2.0)	2(1.0)	
	기타	1(2.0)	0(0.0)	0(0.0)	2(4.1)	3(1.6)	
술 마실때 좋아하는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5(10.0)	18(40.9)	10(20.0)	29(59.2)	62(32.1)	$\chi^2=53.849$ DF=12 p<0.000
	시끄러운 분위기	27(54.0)	19(43.2)	30(60.0)	11(22.4)	87(45.1)	
	상관없다	16(32.0)	7(15.9)	10(20.0)	8(16.3)	41(21.2)	
	기타	2(4.0)	0(0.0)	0(0.0)	1(2.0)	3(1.6)	
주로 마시는 술 종류	맥주	15(30.0)	12(27.3)	23(46.0)	36(73.5)	86(44.6)	$\chi^2=49.514$ DF=15 p<0.000
	소주	25(50.0)	20(45.5)	19(38.0)	10(20.4)	74(38.3)	
	막걸리	7(14.0)	5(11.4)	4(8.0)	0(0.0)	16(8.3)	
	과일소주	2(4.0)	7(15.9)	4(8.0)	3(6.1)	16(8.3)	
	기타	1(2.0)	0(0.0)	0(0.0)	0(0.0)	1(0.5)	
안주선택 시 가장 중요 시 하는 점	분량	11(22.0)	13(29.5)	7(14.0)	4(8.2)	35(18.1)	$\chi^2=40.706$ DF=15 p<0.000
	가격	12(24.0)	14(31.8)	10(20.0)	10(20.4)	46(23.8)	
	기호성	25(50.0)	11(25.0)	29(58.0)	35(71.4)	100(51.8)	
	영양성	1(2.0)	5(11.4)	3(6.0)	0(0.0)	9(4.7)	
	기타	1(2.0)	1(2.3)	1(2.0)	0(0.0)	3(1.6)	
안주 중 가장 많이 먹는 것	탕류	27(54.0)	11()	25(50.0)	14(28.6)	77()	$\chi^2=83.244$ DF=21 p<0.000
	마른안주	5(10.0)	6()	4(8.0)	6(12.3)	21()	
	튀김류	2(4.0)	20()	6(12.0)	2(4.1)	30()	
	과일	8(16.0)	2()	10(20.0)	13(26.5)	33()	
	소세지 및 훈제류	7(14.0)	4()	3(6.0)	11(22.4)	25()	
	스넥류	1(2.0)	0(0.0)	2(4.0)	0(0.0)	3()	
	기타	0(0.0)	0(0.0)	0(0.0)	3(6.1)	3()	
술을 마시는 습관	자신이 먹을 만큼	19(38.0)	26()	23(46.0)	28(57.2)	96()	$\chi^2=54.447$ DF=18 p<0.000
	주는 대로	4(8.0)	2()	9(18.0)	2(4.1)	17()	
	폭탄주로	0(0.0)	3()	0(0.0)	0(0.0)	3()	
	상대에게 권함	0(0.0)	4()	3(6.0)	1(2.0)	8()	
	분위기에 따라	27(54.0)	8()	15(30.0)	18(36.7)	68()	



<표4-3> 학년별 음주행동

		학 년				전 체	비 고
		1학년 (n=50)	2학년 (n=44)	3학년 (n=50)	4학년 (n=49)	(n=193)	
술값 지불 방법	자기가 낸다	7(14.0)	6(13.6)	8(16.0)	2(4.0)	23(11.9)	$\chi^2=25.790$ DF=12 p<0.011
	상대방이 낸다	16(32.0)	11(25.0)	15(30.0)	8(16.0)	50(25.9)	
	각자 낸다	24(48.0)	24(54.6)	22(44.0)	32(64.0)	102(52.8)	
	기타	3(6.0)	3(6.8)	5(10.0)	7(14.0)	18(9.3)	
한달 술값 지출 비용	2만원 미만	22(44.0)	23(52.3)	20(40.0)	16(32.0)	81(42.0)	$\chi^2=25.907$ DF=15 p<0.039
	2-4만원 미만	24(48.0)	12(27.3)	17(34.0)	24(48.0)	77(39.9)	
	4-6만원 미만	3(6.0)	6(13.6)	7(14.0)	7(14.0)	23(11.9)	
	6만원 이상	0(0.0)	3(6.80)	6(12.0)	2(4.0)	11(5.7)	
몇 차까지 가는지	1차까지	13(26.0)	14(31.8)	16(32.0)	9(18.0)	52(27.0)	$\chi^2=38.123$ DF=12 p<0.000
	2차까지	27(54.0)	25(56.8)	21(42.0)	34(68.0)	107(55.4)	
	3차까지	8(16.0)	4(9.1)	11(22.0)	5(10.0)	28(14.5)	
	밤 샌다	2(4.0)	1(2.3)	2(4.0)	1(2.0)	6(3.1)	
술버릇	잠을 잔다	18(36.0)	13(29.6)	19(38.0)	21(42.9)	75(38.9)	$\chi^2=32.196$ DF=21 NS
	말이 많아진다	13(26.0)	16(36.4)	13(26.0)	18(36.7)	56(29.0)	
	운다	4(8.0)	2(4.5)	4(8.0)	0(0.0)	10(5.2)	
	폭력적이다	2(4.0)	0(0.0)	1(2.0)	0(0.0)	3(1.5)	
	변화 없다	11(22.0)	10(22.7)	11(22.0)	8(16.3)	40(20.7)	
숙취해소를 위한 방법	기타	2(4.0)	3(6.8)	2(4.0)	2(4.1)	9(4.7)	$\chi^2=37.063$ DF=21 p<0.017
	밥을 먹는다.	14(28.0)	18(40.9)	18(36.0)	20(40.8)	70(36.3)	
	약을 복용한다.	5(10.0)	3(6.8)	8(18.0)	0(0.0)	16(8.3)	
	해장국을 먹는다	10(20.0)	5(11.4)	8(16.0)	11(22.4)	34(17.6)	
	해장술을 마신다	0(0.0)	0(0.0)	1(2.0)	1(2.1)	2(1.1)	
	음료를 마신다	15(30.0)	13(29.6)	12(24.0)	11(22.4)	51(26.4)	
	목욕을 한다	3(6.0)	3(6.8)	0(0.0)	1(2.1)	7(3.6)	
기타	3(6.0)	2(4.5)	3(6.0)	5(10.2)	13(6.7)		

&lt;표 4-4&gt; 학년별 음주행동

		학 년				전 체 (n=193)	비 고
		1학년 (n=50)	2학년 (n=44)	3학년 (n=50)	4학년 (n=49)		
음주 후 기억 못하는 적이 있는지	있다	18(36.0)	14(31.8)	19(38.0)	15(30.6)	66(34.2)	$\chi^2=27.914$ DF=18 p<0.063
	없다	32(64.0)	30(68.2)	31(62.0)	34(69.4)	127(65.8)	
음주 후 출석 상태	꼭 들어간다	43(86.0)	37(84.1)	24(48.0)	43(87.7)	147(76.2)	$\chi^2=52.961$ DF=12 p<0.000
	오후수업만 들어간다	3(6.0)	4(9.1)	16(32.0)	2(4.1)	25(13.0)	
	안 들어간다	3(6.0)	3(6.8)	6(12.0)	0(0.0)	12(6.2)	
	기타	1(2.0)	0(0.0)	4(8.0)	4(8.2)	9(4.6)	
음주 다음날 수업 태도	잔다	6(12.0)	5(11.4)	11(22.0)	1(2.1)	23(11.9)	$\chi^2=40.456$ DF=15 p<0.000
	평소와 같다	27(54.0)	21(47.7)	18(36.0)	18(36.7)	84(43.5)	
	집중력이 떨어진다	17(34.0)	16(36.4)	21(42.0)	30(61.2)	84(43.5)	
	기타	0(0.0)	2(4.5)	0(0.0)	0(0.0)	2(1.1)	
음주 후 후회 여부	있다	31(62.0)	25(56.8)	19(38.0)	34(69.4)	109(56.5)	$\chi^2=25.872$ DF=6 p<0.000
	없다	19(38.0)	19(43.2)	31(62.0)	15(30.6)	84(43.5)	
IMF전후의 술 마시는 횟수	줄었다	12(24.0)	13(29.5)	13(26.0)	24(49.0)	62(32.1)	$\chi^2=28.254$ DF=9 p<0.001
	그대로다	29(58.0)	27(61.4)	34(68.0)	22(44.9)	112(58.0)	
	늘었다	9(18.0)	4(9.1)	2(6.0)	3(6.1)	19(9.9)	

한달 용돈에 따른 술값지출 비용을 비교해 보면 1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2만원 미만' 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15만원을 받는 경우 '2만원 미만' 이 43.3%, '2-4만원 미만' 이 41.8%로 나타났으며 16-20만원을 받을 경우 '2-4만원 미만' 이 높게 나타났다. 21-25만원을 받을 경우 '2-4만원 미만' 이 36.4%, 다음이 '2만원 미만' (31.8%)순으로 나타났고, 26-3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2만원 미만' (37.5%), '6만원 이상' (37.5%)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술 마시는 횟수를 비교해 보면 '일주일에 3-4번 마신다' 의 경우는 용돈과 술 마시는 횟수가 비례했지만(p<0.05), 다른 요인들을 비교해 보면 한달 용돈과 술 마시는 횟수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술 마시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표5> 한달 용돈에 따른 음주행동의 차이

		한 달 용 돈						전 체 (n=200)	비 고
		10만 원 이하 (n=15)	11-15 만원 (n=67)	16-20 만원 (n=70)	21-25 만원 (n=22)	26-30 만원 (n=16)	31만 원 이상 (n=8)		
한달 동안 술값에 드는 비용	2만원 미만	9(60.0)	29(43.3)	28(40.0)	7(31.8)	6(37.5)	1(12.5)	80(40.0)	$\chi^2=118.61$ 3 DF=30 p<0.000
	2-4만원 미만	1(6.7)	28(41.8)	33(47.1)	8(36.4)	3(18.8)	2(25.0)	77(38.5)	
	4-6만원 미만	2(13.3)	5(7.5)	8(11.4)	5(22.7)	1(6.3)	2(25.0)	23(11.5)	
	6만원 이상	0(0.0)	2(3.0)	0(0.0)	1(4.5)	6(37.5)	3(37.5)	12(5.5)	
술 마시는 횟수	매일	1(6.7)	4(6.0)	3(4.3)	4(18.2)	0(0.0)	0(0.0)	13(6.5)	$\chi^2=50.596$ DF=36 NS
	일주일에 한번	0(0.0)	17(25.4)	18(25.7)	4(18.2)	1(6.25)	4(50.0)	45(22.5)	
	일주일에 3-4번	6(6.7)	4(6.0)	10(14.3)	1(4.5)	5(31.3)	2(25.0)	23(11.5)	
	한달에 2번	2(3.3)	14(20.9)	16(22.9)	5(22.7)	3(18.8)	1(12.5)	41(20.5)	
	한달에 한번	5(33.3)	17(25.4)	17(24.3)	6(27.3)	3(18.8)	1(12.5)	49(24.5)	
기타	4(26.7)	9(13.4)	2(2.9)	1(4.5)	3(18.8)	0(0.0)	19(9.5)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맥주	7(46.7)	24(35.8)	31(44.3)	9(40.9)	11(68.8)	4(50.0)	86(43.0)	$\chi^2=30.180$ DF=30 NS
	소주	5(33.3)	26(38.8)	25(35.7)	9(40.9)	3(18.8)	4(50.0)	74(37.0)	
	막걸리	0(0.0)	5(7.5)	8(11.4)	2(9.1)	1(6.25)	0(0.0)	16(8.0)	
	과일소주	1(6.7)	8(11.9)	5(7.1)	1(4.5)	1(6.25)	0(0.0)	16(8.0)	
기타	0(0.0)	0(0.0)	0(0.0)	1(4.5)	0(0.0)	0(0.0)	1(0.5)		

#### IV. 결론 및 요약

학업이나 과외활동으로 인하여 식생활을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 대학생, 특히 여대생의 경우는 지나친 체중관리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기 쉬우며 더구나 여성들의 음주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울산대학교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음주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2.1cm와 50.7kg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전체의 87.0%가 자택통학으로 가장 높았고 자취(8.5%), 기숙사(4.5%)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용돈은 16-20만원이 35.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한달 술값지출 비용으로는 4만원 미만이 38.5%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여부에서는 전체의 68.0%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는 경우에 운동횟수는 일주일에 세 번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종류로는 줄넘기나 홀라우프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헬스, 비디오를 통한 체조, 수영, 조깅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식습관 조사에서 하루 세 끼 식사의 규칙성 여부에서는 66.0%가 불규칙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결식하는 끼니로는 아침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식하는 이유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기상시간이 늦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의 음주여부는 95.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많았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학과행사나 모임 등으로 술 마시는 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가 43.0%, 소주가 3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안주로는 탕류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과일(16.5%), 튀김류(15.0%)이었다. 음주 전에 건강을 위해 60.5%는 밥을 챙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유와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각각 8.0%와 5.5%로 나타났다.

술 마시는 장소로는 학교 근처 호프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소주방이나 로바다야끼(25.5%) 순이었다. 술 취한 후의 독특한 버릇으로는 '그냥 잔다'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말이 많아진다'가 28.0%, '운다'가 5.0%이었고 '아무 변화없다'도 20.0%를 나타냈다. 함께 술을 마시는 동료로는 61.5%가 동성친구이었으며, 선배나 후배의 경우는 28.0%이고 이성친구는 4.5%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술값지출 비용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음주횟수나 술의 종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음주행동에 관련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와 아울러 올바른 식생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광기(1996):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2:162-170
- 신애숙, 김경자(1995):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음식문화 실태조사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5:351-360
- 신애숙, 우문호(1999): 양산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연구(1),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2):131-137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p 290-293
- 최혜미 외(2000): 21세기 영양학 p 430-433, 교문사
- 한명주, 조현아(1998): 서울지역 대학생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4):323-329
- Roman PM(1991): Alcohol: The Development of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Use and Abuse,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 World Health Organization(1986): Lifestyles and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22:117-124